

회복시켜 주실 사랑의 하나님

-복음으로 여는 말라가-

말라기 1:2-5, 로마서 5:8

정윤돈 목사님

오늘은 구약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한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이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이다. 가정을 지키고, 온전한 십일조를 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것이다. 짧지만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서론 : 말라기서의 배경과 시대 상황

말라기서를 기록한 배경과 상황은 무엇이었겠는가? 성전을 재건하고 70여 년 정도가 흘렀다. 하나님은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고 약속하셨었다. 그런데 두 번째 성전을 짓고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속국 신세를 면하지 못했다. 세금은 과중했고 생활은 어려웠다.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것이다. 예수 믿으면 잘 되어야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예배도 대충 드리고 헌금도 대충 하고 설교도 대충 듣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그 사랑을 설명하고, '너희는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 돌아오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란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못 주시겠는가.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된다.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깨달으니까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는 결론이 나와야 하는데, 이게 안 되고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며, 예수를 축복 받는 도구 정도로 생각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돌리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게 반대로 되면 종교가 된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건강도 생명도 주님의 것이므로, 주님이 가져가신다 해도 여전히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주님의 뜻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한다. 이스라엘은 복음도 제대로 못 깨달았지만 이것을 약간 실천했는데 세계를 이끄는 민족이 되었다. 우리가 그 이상의 축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

1.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잘못했던 것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잘못했던 부분이 무엇인가?

(1)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했다. 말라기 1:2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모든 것을 걸고 키운 자녀가 엄마에게, "엄마가 나에게 해 준 게 도대체 뭐야?" 하는 것과 같다. 잘못을 하면 꾸짖는 것이 부모의 일 아닌가? 이것을 듣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금만 편해지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교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계속 얻어맞는 성도들을 자세히 보면, 더 터져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맞아야 하는데 안 맞는 것을 보면 격정된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기 때문이다.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버는데 주일 빼먹고 교만한 사람이 복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어떤 랍넛트는 어려움 없이 응답을 술술 잘 받아나간다. 고생을 해도 서밋을 위한 길이 된다. 그것이 부모님의 기도 응답인 줄 알아야 하는데, 예배를 술술 빠진다. 교회에서 봉사도 안 한다. '저러다가는 큰일 날 텐데.'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랍넛트가 되시기 바란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항상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느끼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안 맞아서 그렇다. 심하게 맞아보면 깨달아지게 되어 있다. 고린도후서 1:8-9을 보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응답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2) 하나님을 멸시하고 공경하지 않았다. 말라기 1:7에, 그들은 이방 신에게 제사지냈던 더러운 떡을 예물로 드렸다. 교회에 헌물을 할 때는 중고로 하지 마라.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 헌금 대충 하지 마라. 어떤 분은 꼭 은행에 가서 새 돈을 가지고 와서 헌금을 한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응답을 받는다. 와서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이게 안 되는 것은 온전하지 않은 예물이요, 복 받을 수 없는 예물이다. 겨우 일용할 양식 정도는 받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 문을 여시고 쏟아부어주시는 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말라기 1:8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 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세상 것은 좋은 것을 하면서 하나님께는 이런 것을 드린다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3) 제사장, 레위인들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실하고 있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므로, 우리도 그 언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말라기 2:5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예수 믿고 그리스도로 결론이 났는데 얼굴에 평강이 없고 행복이 없다. 만왕의 왕, 진능하신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가 우울해해야 하는가. 언약을 깨는 것이다. 생명만 생각하면 된다. 생명 살리고 생명 구원하고 전도하는 것만 생각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모든 것이 올 것인데, 이것을 안 하니까 행복이 없는 것이다. 말라기 2:5 하반절은,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다. 학교는 안 늦으면서 예배는 늦는다.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다. 가볍게 생각하니까 그렇다. 말라기 2:6에,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 사역을 제대로 못 하면서 불평, 불만만 가졌다. 욕심만 부렸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았다. 냉소적으로,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것이다. 말라기 2:8에,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이것을 돌아보라는 것이다.

(4) 그들은 가장 귀중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있었다. 말라기 2:15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한 명의 아내만 맞이하게 하셨다는 말이다. "어찌하여 하나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지순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것을 랍넛트들이 잘 알아야 한다. 처녀, 총각 때 알아야 한다.

(5) 어떤 일이 있어도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 깨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십일조가 그러한 것이다. 10은 우리가 손대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것을 말한다. 손을 대면 재앙을 만나게 된다. 이 땅을 살면서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예컨대 전기를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된다. 재앙을 만나게 된다.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나는 젊은 교역자들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항상 경어를 쓴다. 하나님이 기쁨 부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사울이 그렇게 잘못해도 자기가 손을 대지 않았다. 기쁨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목회자에게 따지거나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나쁜 일을 해도 내가 직접 손을 대면 나에게 너무 손해가 된다.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을 손대면 재앙을 만나게 된다. 음주운전이나 역주행을 하면 되겠는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행동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딱 역주행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다. 최소한의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주일성수다. 십일조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소한의 통과 기준이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성적표를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 F학점을 받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말라기는 우리에게 돈을 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삶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라고 말씀한다. 언약을 깨지 말라고 말씀한다. 주일을 성수하고, 예물을 회복하라고 한다. 성전의 진정한 주인 되신 그리스도, 복음이 회복되어야 성전이 정말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한다. 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한다. 왜 재앙이 오며, 어떻게 여기에서 해방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구원의 길 메시지다. 이것을 선포할 때 흑암이 꺾인다. 이것은 빛을 발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던 것이다. 말라기 3:8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범죄를 계속 하면 재앙과 저주가 온다. 십일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창세기 때부터 나온 개념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지켰을 때 우리가 지켜진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그것을 범하면 땅이 저주를 받는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았지 않나.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요, 땅을 회복시키는 것이 십일조다. 신약성경에서는 이것을 강조하지 않았다. 초대교회는 십일조를 드린 정도가 아니라, 전 재산을 드리고 목숨까지 드리면서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엄청난 응답이 오게 되었다. 여러분이 록펠러 같은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란다. 10의 9조를 드리는 분들이 나오게 되기를 바란다. 복음 안에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의 경우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 주셨다. 차도 시간표를 따라 다 주셨다. 아들딸을 주시고, 좋은 아내도 주셨다. 조금 무섭지만. (웃음) 하나님께 작은 헌신을 해 보라. 우리는 사실 대단한 게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세계복음화를 해야 한다. 그래서 넘치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2.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방법

이렇게 문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회복하는 방법을 주신 것이다.

(1) 말씀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특히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시기 바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어야 한다. 이들이 이것을 안 한 것이다. 말라기 2:2에,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이것은, 반대로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된다. 강단의 메시지를 그대로 붙잡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2)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을 때 받는 축복이 있다. 처음에는 십일조가 어려울 수 있다. 작은 것부터 하지 않으면 큰 것이 생겼으면 더 하기 어렵다. 청소년 때 용돈 받을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 습관이다.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주일도 도둑질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것,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은혜를 받을수록 이것이 증가된다.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절대 손해가 아니다.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3) 엘리야와 같은 한 선지자, 즉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셨다. 말라기 4:6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모든 인간관계도 회복될 것이요, 모든 재앙과 저주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부부 사이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가정을 깨는 것이다. 손대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 부부 사이가 정말 어려워지면 방법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돌이킬 수 있다. 자녀와 부모, 형제 사이에, 성도 사이에 원수되는 일들을 많이 본다. 인간관계를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오직 복음이 회복될 때, 모든 관계가 그 전보다 더욱 아름답게 회복될 것이다.

결론 : 우리의 미션과 우리가 받을 축복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미션을 드리고자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

아와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이 나태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핑계를 대면서 불순종하는, 냉소적인 상태로 변질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 잘못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죄악된 것이 너무 많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1)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승리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갈수록 감사하고 죄송하다. 내가 잘못했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더 결단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란다.

(2)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과 헌신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정말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시간을 쪼개서 정기도하고 깊은 기도를 하며, 전도를 위해서 캠프하는 시간을 만들고, 생명 살리는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세계 살릴 준비를 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넘치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

(3) 우리가 받을 축복이 무엇인가? 말라기 3:10이하를 보라. 십일조를 돈으로만 생각하지 마라. 마음, 생각, 시간, 정성,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때 일어날 일이다.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간절한 소원이다. 우리 성도들이 너무 복을 많이 받아서 힘들다고, 그 복을 좀 나눠주고 싶다고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것이다. 말라기 3:11에,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급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재앙과 저주를 막아주시겠다는 것이다. 어떤 권사님이 하신 간증이다. 자기가 십일조를 실패했는데 결혼한 아들이 계속 유산을 하더라는 것이다. ‘기한 전에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십일조를 회복했더니 귀한 자녀를 낳았다고 한다. 그때부터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고 한다. 여러분에게 한금 더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을 간증하는 것이다. 조금 받았는데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나. 여러분이 30배, 60배, 100배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란다. 말라기 3:12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 필리핀 선교사님의 이야기다. 선교지에 나갔다가 와서 보니까, 한국이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했다. “첫째는 선교사님이 성령충만 받으셔서 그렇고, 둘째는 나무가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곳곳의 산들이 다 민둥산이었다. 지금은 다 나무로 가득하다.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감동받은 것이 몇 가지 있는데, 현금을 은행에서 내 마음대로 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고 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무가 많다는 것이다. 북한은 평양 바깥에는 나무가 없다고 한다. 100년 전에는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살기 어렵다 하는데,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 보면 안다. 우리나라만큼 병들었을 때 병원 쉽게 갈 수 있도록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없다. 해외 나갈 때마다 답답하지 않나? 우리나라만큼 인터넷 잘 되는 나라가 없다. 이 모든 축복이, 나를 하나님께 드렸던 믿음의 선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온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후대에게 재앙을 전달하게 된다.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전달함으로써,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 사랑의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란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정확한 복음과 영적 원리를 이해하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복의 근원 되는 축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전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램넛들이 일곱 램넛를 능가하는 인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